



2022년 11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 [多 Issue]

### 내 이럴 줄 알았다

#### FOMC: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75bp 인상

이번 FOMC에서는 전일 선물시장에 반영되었던 90% 확률에 부합하는 75bp 인상을 단행하였다. 파월은 속도 조절에 대해 시사하였으나 여전히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확인시켜주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던 주식 시장은 속도 조절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반응하여 상승 후 매파적 발언에 폭락하였다. 이날 S&P 500 지수는 -2.50%, 기술주 중심의 Nasdaq 지수는 -3.36%의 하락을 기록, 10월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이로써 연준의 피벗&속도 조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의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또 패배하였으며 금년 연전연패의 승물을 기록하였다.

#### 아직 한발 남았다

이번 FOMC에서 주목할 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씩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12월부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비록 당근과 채찍을 하나씩 주었지만 미국 선물에 내재된 금리 경로는 2달 전 대비 금리 인상 폭 증가, 최종 금리 도달 시점의 딜레이, 고금리 장기화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주식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고통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금년 FOMC는 이제 12월 14일 예정된 1번의 회의만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 Fed Watch 기준으로는 50bp의 인상 확률이 56.8%로 우세한 상황이나 최근에도 75bp 인상 확률과 수시로 역전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 FOMC까지 남은 이벤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FOMC까지 주목할 미국의 이벤트로는 크게 차주 예정된 중간선거, 2번의 고용지표(비농업 고용, 실업률), CPI가 있으며 작게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있다. 다시 그리고 여전히 증시는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며 변동성 높은, 개별 테마주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 짧게 치고 빠지자

약세장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와 종목이 계속 등장하며 수익을 볼 기회는 전 종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의 고난이 예상되는 바 큰 비중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에 장기간 노출되는 전략보다는 호흡을 짧게 가지고 시장의 테마에 편승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 Investment Idea

#### Equity



주식시황 한재혁

02-3771-3112

jaehyukhan@hanafn.com

####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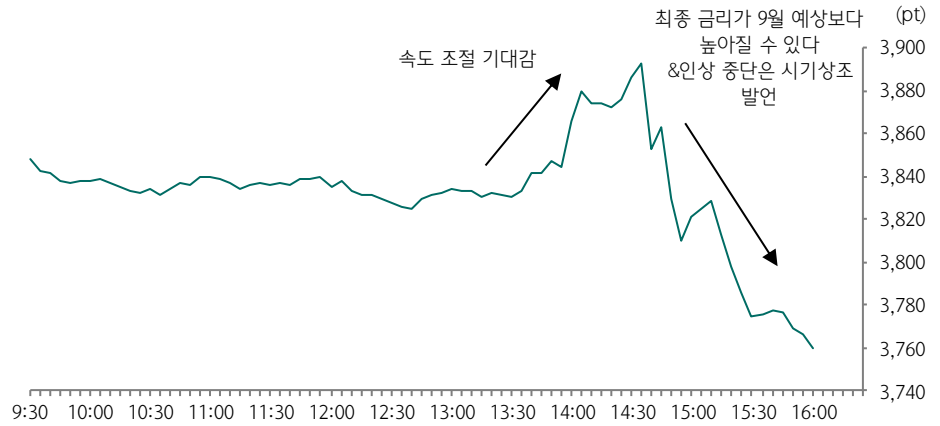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내 이럴 줄 알았다

FOMC에 대한 경계감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증시는 속도 조절 기대감에 상승하기도 하였음

다만 매파적 발언에 상승분 모두를 급격히 반납하며 폭락을 시현

그림 1. FOMC 당일의 S&P 500 지수 5분봉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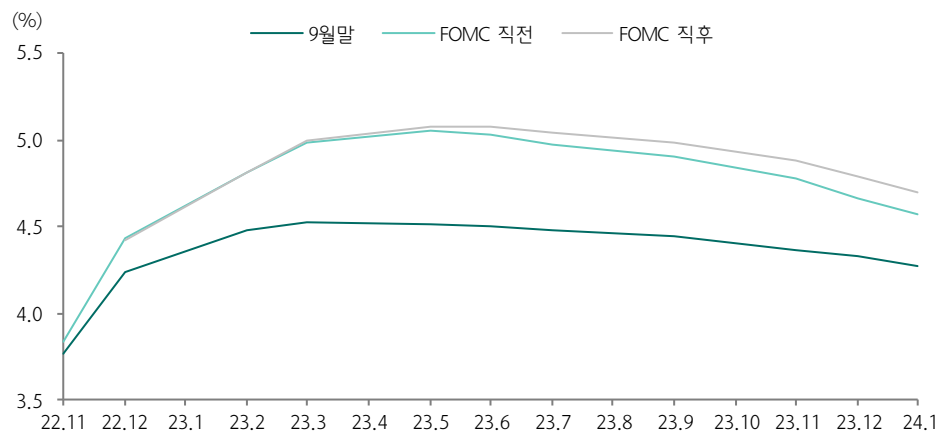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그림 2. 금리 선물에 반영된 금리 경로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었던 9월말보다

1. 최종 금리 도달 일정은 멀어지고
2. 장기간 더 높은 금리가 예상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